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 2. 26(수) 10:00		
배포일	2014. 2. 26(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담당부서	교무처 학사과 학생처 학생지원과 사무국 총무과	문의	행사진행: 총무과(880-5091) 학위수여: 학사과(880-5032) 학생 관련: 학생지원과(880-5052)

제 목: 서울대학교, 제68회 학위수여식 개최

오연천 총장 “다양성과 유연함, 세계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질” 강조

- 서울대학교는 제68회 학위수여식을 2014년 2월 26일(수)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학위수여식에는 오연천 총장, 전임 총장, 부총장(교육·기획·연구), 단과대학 학장 및 원장, 보직교수, 학과 및 학부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오연천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이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습득한 학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오연천 총장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국가관과 인간정신을 두루 갖추고, 다양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통한 근원적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며, 세계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특별 연사로 초청된 이홍구 명예교수(전 국무총리)는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가 겪어온 우여곡절 속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민족의 전통을 지켜가고자 대학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홍구 명예교수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된다”며 “실천에 앞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적절한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에 강조점을 두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591명, 석사 1,917명, 박사 624명 등 총 5,132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생 대표로는 서울대 학군단(ROTC) 첫 여성 장교인 최주연(독어교육과)씨가 연설을 할 예정이다.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은 전체 학위수여식 이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실시될 계획이다.

□ 제68회 학위수여식 주요 식순(2014. 2. 26)

- 14:00~15:00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오연천 총장), 축사(임광수 총동창회장, 이홍구 명예교수·전 국무총리), 학위수여, 상장수여, 졸업생 대표 연설(독어교육과 최주연), 교가제창

*** 첨부자료**

- 학위수여식사(총장, 국·영문)
- 축사(이홍구 명예교수, 임광수 총동창회장)
- 졸업생 대표연설(독어교육과 최주연)

1. 제68회 학위수여식사(총장)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수년간 학업에 정진하여 오늘 졸업의 영광을 안게 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아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교양시민의 자질을 연마하고 전공분야의 지식을 축적하였고 훌륭한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교수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으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미래의 진로를 모색했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업은 미래의 꿈을 향해 역량을 축적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는 항상 밝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학창생활에서 축적한 학문적 성취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패기와 도전정신이 더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고 창조적인 시도들이 실패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영감과 교훈을 얻고 마침내 그것을 새로운 단계의 성공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졸업생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은 대학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미래의 주역인 졸업생들이 「희망의 중심부」에 서서 각자의 포부를 실현하고 창조적 가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습득한 학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이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 자기계발, 자기혁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진정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참된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열을 불태웠던 대학의 창조적 역량과 견고한 공동체 정신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성장해나갈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국가관과 인간정신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존중의 정신을 여러분의 사고와 행동에서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분법적 사고와 극한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다양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통한 근원적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해있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서울대 졸업생들에게 주어진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셋째, 졸업생 여러분은 세계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국가의 목표와 문화적 특성을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창출에 매진해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소중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급속한 글로벌 시장경제의 전개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과 양극화는 개별국가 아닌 인류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우를 때 여러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전통은 졸업생 여러분에 의해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 일동은 늘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의 영원한 정신적 요람이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자부심이 충만한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6

총 장 오 연 천

2. The President' s 2014 Commencement Speech

Dear graduates,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you al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parents and the faculty members for all their love and support for making your achievements possible.

Dear graduating class,

During your studies at SNU, you have matured into educated world citizens, explored the depth of knowledge in your respective fields, and completed your theses and dissertations. You have forged new friendships on campus, have had fervent discussions on all kinds of issues and pondered on your future. College is where you prepare for the future by building your knowledge. Now, you are about to enter into the world where you will be asked to realize your goals. Your future may not always be bright. But you will be able to overcome any bump on the road if you call on your inner strength and courage based on all your academic achievements during your studies at SNU. Sometimes, a creative, risky attempt may bring failure, but failure will give you new lessons and inspirations and eventually lead you to a whole new different road that leads to success.

Dear future leaders of Korea,

I believe that the university is the true foundation for opening the doors to a new era. You graduates, as our future leaders, must stand at the “heart of hope” and realize your individual dreams and lead the society with new creative values. By opening your eyes wide and looking to the world, consistently deepening your academic values and being kind to and sharing with others, you will be able to lead the society and the world with a new *zeitgeist*. Endless introspection, self-development and self-reform will lead you to grow into the true pillars of the world contributing to the greater good, rather than being bogged down to mere self-interest. You must hold onto the belief that a firm communal and spirit will

shape your future.

Now, I would like to share a few words of wisdom with the future leaders of the world.

First, it is important for you to hold onto views of the humanity and the nation that can truly contribute to the greater good. Co-existence and respect for humanity must be the values that you must hold most dear in your actions and thought. You must go beyond self-interest and attempt to have the utmost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those who are less fortunate. In this process, you must try to go beyond polarizing way of thinking in black and white and always try to communicate and understand each other with the utmost consideration for others.

Second, you must put great value on diversity and flexibility and work diligently towards creating fundamental values through creative thinking. In order to respond to the uncertainty that we face in our society and nation today and to make a great leap, you need comprehensive thought and integral imagination. You must depart from conventional and fixed ideas and create new paradigms. These are indeed the grave responsibilities bestowed upon SNU graduates.

Third, you must grow as future leaders with the qualities and capabilities of educated world citizen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rise above the boundaries of a nation's goal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reate enlightened values that may be deemed universal in every way. Economic polarization and other side effects of rapid global economic development are not problems confined to certain nations but problems that we as global citizens face together.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you need to think as global citizens.

You will become true global leaders if you have cultivated all of these three important values.

Dear graduating class,

I am certain that you will continue to carry on the legacy of the spirit and tradition of SNU. The faculty and staff at SNU will always be on your side. SNU will forever be your spiritual foundation.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is step forward, and I hope that your future will hold fulfillment and deep pride.

Thank you.

26 February, 2014

Yeon Cheon Oh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3. 축사(이홍구 명예교수 · 전 국무총리)

역사의 흐름에는 큰 고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비를 넘어왔지만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는 해방 70년, 곧 한반도 분단 70년을 맞게 됩니다. 거기에 일제치하 35년을 더하면 우리민족은 지난 한 세기, 정확하게는 104년 동안을 통일된 주권국가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한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족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한 세대 급격히 진행된 세계화물결 속에서 그 주류에 성공적으로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75개국에 널리 퍼져 살면서 단일민족의 순혈주의를 넘어선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문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바로 그러한 한국인의 진취적 적응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서울대학교는 내년이면 개교 120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겪어온 우여곡절 속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민족의 전통을 지켜가고자 대학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나 거대한 군사력 또는 이념적 독선에 집착하지 않고 창의력과 유연성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

의 공동체를 지향하였던 세종대왕의 비전과 이순신장군의 용기를 계승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민주공동체를 가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시민들이 모이면 과연 자동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지, 합리적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가는 과연 합리적 운영이 보장되는지, 아직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많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침에는 일리가 있지만 100년 전 현대중국을 출범시킨 손문선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천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더 나아가 인재를 기르는 대학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졸업생여러분도 실천에 앞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적절한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에 강조점을 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6·25전쟁 중이던 1953년 봄, 서울대에 입학하였습니다. 모교의 정치학과 교수에 재직했던 1988년 민주화의 결과로 구성된 새 정부에서 새 통일방안을 만드는 책임을 맡은 통일원장관으로, 20년전엔 이른바 세계화 내각을 이끌며 국무총리로 일하였습니다. 냉전의 막이 내려가던 그때만 해도 10년이나 20년만 노력하면 통일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80노인이 된 저로서는 오늘 영예로운 학위증을 받는 여러분과 많은 한국의 젊은 후배들에게 조국통일의 역군이 되어주길 부탁하러 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 축사(임광수 총동창회장)

尊敬하는 吳然天 總長님! 歷代 總長님과 敎授·敎職員 여러분!

學位를 받는 後輩 卒業生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學父母님과 親知, 內外 貴賓 여러분!

먼저 33萬 同門을 代表하여 오늘學位를 받는 자랑스러운 서울大人 여러분께 眞心으로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값진 結實이 있기까지 獻身的으로 뒷받침해 주신 學父母님께, 그리고 誠心껏 지도해주신 敎授님과 敎職員 여러분께도 感謝와 祝賀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情든 校庭을 떠나 學校 밖 社會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 學窓 時節에 대한 그리움과 社會人으로서의 새 出發에 대한 설렘이 交叉할 것입니다. 未來에 대한 自信感과 熱望으로 充滿한 여러분들의 凜凜하고 堂堂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學校 밖 現實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速度로 變化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과 熾烈하게 競爭을 벌여야만 하는 것이 現實입니다. 美國의 有名한 作家이자 國際的 革命理論家인 ‘토머스 페인’은 “學校에서 배운 知識은 卒業 후 自己 스스로 배우는 데 들어가는 小資本 같은 것” 이라고 했습니다.

母校에서 배운 知識을 資本 삼아 勇氣를 가지고 社會에 挑戰하십시오.

勇氣를 가지고 挑戰하는 者만이 새로운 世界에 對한 두려움을 克服하고, 自身이 원하는 바를 가장 먼저 成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獨逸의 文豪 괴테는 “아는 것만으로는 不足하다. 適用해야 한다. 마음만으로는 不足하다. 行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目的地를 向해 全力으로 前進하여 이 나라 이 民族의 밝은 未來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卒業生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同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大 家族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大 同門이 되었다는 것은 큰 大義를 爲하여 獻身奉仕해야 하는 無限責任을 지니고 있음을 意味하기도 합니다.

장차 母校가 世界 10位圈 名門大學으로 進入하는데 있어 總同窓會의 一員으로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總同窓會를 爲始한 同門 사회 역시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서울大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祖國의 運命을 우리 서울大人의 無限責任으로 開拓해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의 卒業을 다시 한 번 祝賀드리면서 앞날에 無窮한 榮光이 함께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5. 졸업생 대표 연설문

제68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2,500여 명의 졸업생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 학군단 여후보생으로, 다음 달이면 합동임관식을 거쳐 육군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4년 전 이곳, 관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순간에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2011년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ROTC에 지원하겠다고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속으로 제 자신에게 수십 번을 되물었고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이 정답이라고, 정답일거라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공 공부에 전념하는 동기들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선배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지원서를 학군단 앞까지 가져갔다 가져오기를 반복하던 중에, 문득 그동안 제가 가졌던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돼서 해보지도 않고 물러서려고 하는지. 그렇게 첫발을 내딛은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세상에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용기를 갖고 천천히 한걸음씩 내딛는 방법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주위의 시선과, 낯선 용어, 훈련 과정 그러면서도 학업을 병행하는 상황. 어느 것 하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아야했고 혼이 나야했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저 매 순간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도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버티는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절반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여기서 멈추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3km 달리기도, 아침 8시 군사학 수업도, 또 방학마다 군장을 짊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니 내일이 기다려지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후회를 불러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건 간에, 내 기대치에 내가 미치지 못할 지라도 용기를 내서 포기각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끝까지 가보자고. 처음

가보는 길은 시련과 고통을 주겠지만, 그 아픔이 무뎌져서 아무렇지도 않을 때까지만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자 서울대 학군단 후보생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가올 것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렵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자신은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에서 4년여 간의 시간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하고 결론짓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제가,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워질 때면 가슴 속 열정을 뜨겁게 되살려주었고, 자만심에 허우적거릴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조언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학점이나 학위가 아니라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 바깥의 험난하고 어려운 곳으로 각자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고되고 힘든 시간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나아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그간 우리를 위해 애써준 서울대학교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졸업생 대표 최 주 연